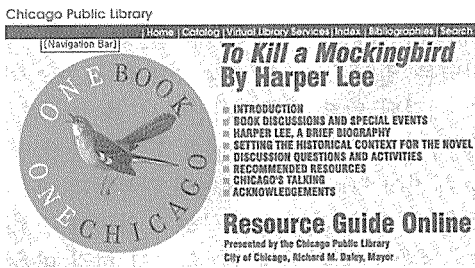


협회행사 보고 ② :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(One City One Book) 시범사업

‘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(One City One Book)’ 시범사업은 우리 협회가 행정자치부 200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다.

‘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’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운동으로^{주)}, 한 도시(지역) 구성원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토론회, 강연회, 전시회 등과 같은 다양한 읽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식과 지역공동체 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지역단위 독서 및 문화 운동이다.



〈미국 시카고시 한도시한책읽기운동 로고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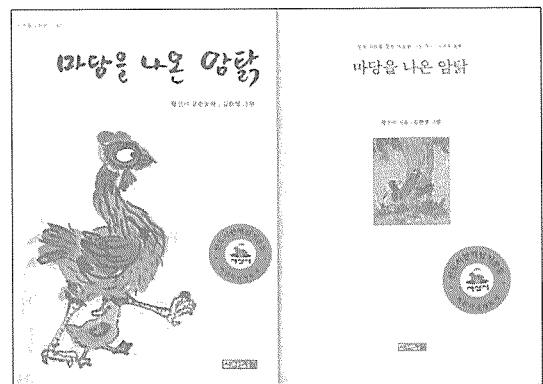
우리 협회는 국내에서 한 지역을 선정하여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해 봄으로써,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서운동인 ‘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’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도입한다면 제반 문제점들을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, 향후 동일 프로그램의 추진과 확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.

동 운동이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, 우리 협회는 우선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조사하여 기초조사 보고서를 작

성하는 한편, 협회와 함께 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도시와 전체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맡아 진행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선정에 들어갔다.

기초조사보고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윤정옥 사서가 작성을 맡아 주었으며, 코디네이터와 시범지역으로는 각각 도서평론가 이권우 씨와 서산시(시장 조규선, 인구 15만명)가 선정되었다.

우리 협회는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‘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워크숍’(9. 26. 제주컨벤션센터)을 개최하여 이 번 독서운동 전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, 서산시는 9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『마당을 나온 암탉』(황선미 저, 사계절, 2000)을 서산시민이 함께 읽어야 할 도서로 선정하였다.



〈아동용〉

〈성인용〉

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독서활동은 서산시립도서관(관장 이송구)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, 도서관은 각 계 각 층의 모든 서산시

주) 미국 워싱턴(Washington) 주 시애틀(Seattle) 시 공공도서관이 1998년부터 시작한 "한 도시, 한 책" 읽기 운동은 현재 미국 전역의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, 90여개 도시로 확산되고 있으며,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, 오스트레일리아, 영국의 도시들에서도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. (참고: <http://www.loc.gov/loc/cfbook/one-book.html>)

민들을 본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독서토론회용 워크북 제작을 시작으로 20여개 중고교에 '릴레이식 돌려 읽기' 운동을 벌이고, 책을 읽은 시민들은 시내 지정 카페에 나와 언제든지 모르는 사람과 열띤 토론회를 열 수 있게 하였다(상세 행사 일정 아래 참조). 서산시립도서관의 박미희 사서는 "도서관에 대상도서 200여권을 비치해 놓았으나 서가에 꽂혀 있을 여가가 없을 정도로 대출 건수가 부쩍 늘었다"며 "시내 서점에서도 대상 도서의 판매량이 느는 등 시민들의 독서 열기가 크게 높아졌다"라고 서산의 분위기를 전하며 행사 준비로 몸은 고되지만 사서로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.

〈 '한 도시 한 책읽기' 운동 행사 일정
작가강연회 및 토론회(11. 14., 11. 21.)
그림전시회(11.4-11.29. 시립도서관 외 시내 학교 7개소)

- '마당을 나온 암탉' 연극 비디오 상영 (11월 중)
- '치킨 런' 영화상영 (11. 8., 11. 29., 시립도서관)
- 북카페 운영(11. 17. - 12. 6.)
- 백일장 대회(11. 29., 서령고등학교 체육관)
- 책선물 릴레이(11. 1. - 계속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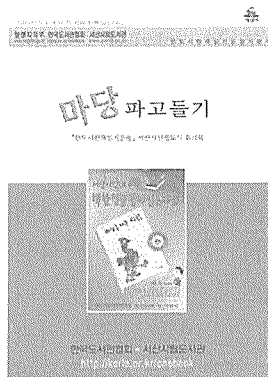
서산시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하고 3,000만원의 사업예산안을 시의회에



〈'마당을 나온 암탉'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고 있는 인지중학교 도서관 학생들〉

제출하는 등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, 12월 12일 서산시립도서관에서 개최된 평가워크숍을 통하여 서산시립도서관의 지역사회 내 인식도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고 시민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.

순천시도 자체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, 우리 협회로서는 이번 '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'이 올 한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향후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의 독서 진흥을 이끌고 이를 통해 도서관의 위상을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지역 문화운동이 되기를 기대해본다.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<http://www.korla.or.kr/onebook/index.asp>)를 참조하면 된다. (■정리 : 박경아, kapark@dreamwiz.com, ■사진 : 심효정, shjcap@hitel.net]



〈서산 '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' 워크북〉



〈서산시립도서관 독서토론회모임 주부들〉